

### 평화교육의 관점에서 본 통일교육의 방향

소하나 (성균관대)

#### 서론

지난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단절된 남북한의 관계에도 한줄기 희망이 비추는 것으로 보였다. 10여년이 지난 지금 매체를 통해서 전해지는 남북관계는 낙관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남한을 비롯하여 세계에도 위협을 가하는 내용들뿐이다. 남북한의 경권이 작년과 올해에 걸쳐 각각 새로이 출범함으로써 양측의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정부적 차원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현 시점으로 판단하기에는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 평화 공존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통일의 희망도 장밋빛 환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반도의 중요한 이슈인 남북한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더 나아가 통일에 관련되어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교육의 결과로 나타나는 학생들의 통일의식을 보면, 대부분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오기성, 2012: 8). 이처럼 분단의 역사가 시작된 지 6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의 인식에 통일문제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전락되기 시작했다. 학창시절 학교에서 불렀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도 과거의 희망사항에서 더 발전하거나 진보되지 못한 채 추억의 노래로 남아 있는 듯이 보인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함께 불렀던 그 노랫말처럼 우리의 소원은 진정 남북한 통일이며 그에 합당한 통일 교육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부정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평화교육의 관점에서 통일교육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6.25전쟁을 통하여 경험했듯이 평화적인 방법 외에는 전혀 다른 사상을 가진 두 국가는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60여년이 흐른 지금은 더욱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남북한의 관계가 여러모로 심각한 현 시점에서 학교의 통일교육의 방향과 실태를 파악하며 앞으로 남북한의 관계를 평화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에 있어서 월터스토포프가 주장하는 평화교육의 관점이 통일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하나의 기준으로써 제시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월터스토포프가 주장하는 평화교육의 정의(definition)를 살펴보고 평화교육의 관점에 의거한 통일교육의 방향을 고찰해 보자.

#### 본론1 현 통일교육의 방향과 실태

통일교육 방향을 알기 위해, 먼저 우리나라 현재 통일교육 정책기조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오기성(2012)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는 과거 약 10여 년간 이루어진 화해·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통일교육 방향성의 재정립을 시도하였다. 정부는 지난 10년간의 통일교육이 중립성과 객관성, 안보교육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였다. 더욱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 남북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었으며 2010년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통일교육의 무게

중심이 통일보다는 안보에 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즉, 통일정책의 방향의 변화와 맞물려 학교에서 실시되는 통일교육도 변화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통일교육의 실태를 교육과정상의 통일교육의 변화, 변화 된 통일의식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먼저 교육과정상의 통일교육의 변화를 살펴보자. 학년군 간·교과 간 내용 연계성 강화 및 양과 수준의 적정화 차원에서 학년군·교과군을 고려하여 도덕과 에서 다루어야 할 최소의 필수 학습 내용을 정선함으로써 교과 내용을 약 20%정도 감축 조정이 추구하고 있다. 그 결과 2007년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 비해 2011 개정 도덕과 교육 과정에서 통일교육 내용은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내용 요소 측면에서 보면, 고등학교 선택과목에서는 변화가 없으나 3-9학년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2007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24개의 내용 요소가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전 교육과정의 통일교육 내용을 반영하되, 12개로 감축되었다(오기성, 2012: 5). 두 번째로 변화된 학생들의 통일의식을 살펴보자. 최근에 조사된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관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2008년 63.8%에서 시작하여 2009년 51.6%, 2010년 59.1%였던 것이 2011년 53.7%로 감소되었다는 결과를 발표 한 바 있다. 또한 중앙부처, 국책 연구기관 등에서 발표한 청소년 통일 의식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통일의 관심이 1997년 71%에서 2010년 57.3%로 감소 추세를 보였고, 통일의 필요성 인식도는 1997년 85%에서 2010년 66.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미경, 2010: 18). 각기 다른 기관에서 실시한 학생들의 통일의식에 관한 조사결과만 보더라도 확연히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통일교육의 방향성이 통일보다는 안보에 실리는 모습에 따라 통일에 대한 관심도와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학생들이 점차 증가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통일교육의 심각성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으며 어떤 교육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까? 필자는 기독교 철학자인 월터스토포프의 평화교육에서 그 대안적 방향에 대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월터스토포프의 평화교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 본론2 월터스토포프의 평화교육

우리는 월터스토포프의 평화교육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평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짧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평화의 개념이 월터스토포프가 주장하는 평화의 개념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윤응진(2001)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살롬<sup>343</sup>(평화)을 감정적 차원의 느낌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만족스런 느낌 또는 행복한 감정 등을 평화로 생각한다. 전통적인 외교상의 평화개념은 국제법의 발전과 더불어 발생하였는데, 평화를 ‘전쟁 부재 상태’로 규정한다. 이 일차원적이고 소극적인 평화 이해에 따르면, 평화란 전쟁이 없는 평화의 보전 상태로 간주된다. 이에 반하여 비판적 평화 연구는 보다 더 적극적인 평화 개념을 개발하였다. 이 적극적인 평화 개념에 따르면, 평화란 ‘인간에 의한’ 폭력의 부재뿐만 아니라 동시에 ‘구조적인’ 폭력의 부재를 의미한다. ‘인간에 의한 폭력’이란 직접적이고 명백한, 타자에 의한 인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343) 평화와 살롬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후로는 편의상 살롬도 ‘평화’로 기재한다.

손상으로부터 살해에 이르는 폭력을 의미한다. 전쟁은 이 ‘인간에 의한 폭력’의 가장 포괄적인 형태이다. ‘구조적인 폭력’이란 지배, 예측, 착취의 여러 형태들에 의하여 인간의 생의 보전과 그의 실존은 전개시켜 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들을 보류하는 사회적 상황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러나 월터스토프에 의한 평화 개념은 조금 다르다. 월터스토프는 살롬을 근본적으로 하나님, 다른 사람들, 자연,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라는 네 가지 관계에서 올바르고 화목한 관계를 가지며, 그 관계 속에서 즐기는 삶을 의미한다. 첫째, 살롬은 하나님과 올바르고 화목한 관계를 가지며 또 그분에게 봉사함으로 기쁨을 얻을 때 구체화 된다. 살롬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인간들이 인정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둘째, 살롬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서로 올바르고 화목한 관계를 가지며 인간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에 구체화된다. 셋째, 살롬은 자연과 더불어 올바르고 화목한 관계를 가지며 우리의 물리적 환경에서 기쁨을 얻을 때에 구체화 된다. 넷째, 살롬은 또한 자신과 더불어 올바르고 화목한 관계를 가지며 자기 자신과 더불어 사는 삶을 즐길 수 있을 때 완성 된다(신영순, 2004: 63).

보편적 평화의 개념과 월터스토프가 주장하는 평화의 개념이 조금 상이하다는 것을 위에서 살펴보았다. 보편적 평화의 개념을 말할 때는 소극적평화와 적극적평화로 양분해서 설명하는 반면 월터스토프의 평화의 개념은 하나님, 다른 사람들, 자연,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이 달랐다.

다음으로 월터스토프가 주장하는 평화교육의 조건 중 하나인 정의(justice)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가 말하기를 “평화는 정의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 각 사람은 평화로운 가운데 정의를 누리며 자신의 권리를 누린다. 정의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평화는 정의 이상의 것이다”라고 한다(Wolterstorff, 1983: 69). 이처럼 월터스토프는 정의는 평화의 전제조건이며 정의가 배제된 평화는 참된 평화라고 인식하지 않았다. 다음에 다루게 될 평화교육의 관점에서 본 통일교육의 방향 역시 정의를 강조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 본론3 평화교육의 관점에서 본 통일교육의 방향

우리는 이상에서 현재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의 실태와 이와 관련되어 야기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또한 평화교육을 주창한 월터스토프의 평화교육의 핵심 키워드인 ‘평화(peace)’와 ‘정의(justice)’는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definition)도 알아보았다. 앞으로 평화교육의 월터스토프의 관점이 한국의 통일교육과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일지를 살펴보려 한다. 월터스토프가 주장하는 교육의 목적인 삶을 위한 교육, 책임성 있는 행동을 위한 교육, 감사를 위한 교육, 마지막으로 정의와 평화를 위한 교육에 의거하여 그 방향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 1. 삶에 연관된 통일교육

월터스토프는 교육의 목적을 첫 번째로 삶을 위한 교육이라고 하였고 나는 이것을 삶에 연관된 통일교육이라고 변형시켜보았다. 월터스토프가 주장하는 삶을 위한 교육이란 “학교교육은 아동의 총체적인 삶을 지향해야 하며 그들의 삶 전체를 위해서 운영되

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학교교육의 목표는 아동들의 학교 내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의 삶, 그리고 아동의 현재적 삶뿐만 아니라 미래적 삶을 위해서 그들을 구비시키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Wolterstorff, 2002: 22).” 라는 것이다. 통일교육은 학생의 삶 전체와 관련이 있으며 현재의 삶 뿐 아니라 미래의 삶과도 불가분 관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교육이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만족하거나 불만족스럽든 간에) 한 반도 남한 땅에서 태어났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통일과 우리의 삶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한반도의 분단 현실이 조국의 역사의 결과이며 현재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남북한의 문제는 이웃나라(물론 간접적인 영향이 있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현재를 있게 했으며 나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삶에 연관된 통일교육으로부터 우리는 각자의 ‘정체성’을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며 한민족이라는 정체감, 세계시민이라는 정체감이 조화를 이루어 평화의 상태를 이룰 기초가 된다.

#### 2. 책임성 있는 행동을 길러주는 통일교육

월터스토프는 삶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더 나아가 피교육자들이 삶을 어떻게 책임성 있게 형성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신영순(2004)에 의하면 월터스토프는 “책임성 있는 행동을 위한 교육은 특별히 불의한 사회 구조를 개혁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압제와 고통이 있는 사회구조를 평가가 넘치는 사회구조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기독교 교육은 피교육자들로 하여금 단순히 기독교적 관점만을 구축시켜 주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책임성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구비시켜 주는 목적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필자는 통일교육의 또 다른 방향의 한 축으로 월터스토프의 ‘책임성 있는 행동을 위한 교육’을 가져올 필요를 느낀다. 그 이유는 통일이 얼마나 학생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연관되는지를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여전히 역사의 시간은 흐르고 있고 남북한의 관계는 우리의 행동 여부에 따라 발전할 수도 퇴보할 수도 있음을 지도해야 한다. 즉 현재 우리가 하기 나름으로 과거의 역사의 해석이 달라질 수도 꿈꾸고 이루어나갈 미래도 형성되기 때문이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현재의 불합리와 비평화에 대하여 항거했던 수많은 대학생들과 젊은이로부터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 할 수 있었음을 기억해야 하며 가르쳐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북한 분단 현실은 학생들의 삶과 명백히 연관되어 있음을 가르친 후에 분단현실이 합리적이고 평화로운 상태가 아님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올바른 평화를 위한 합당한 행동들을 생각하며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배운 것에 대한 자발적 실천들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며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뿐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아주 중요한 통일교육의 방향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 3. 감사를 위한 통일교육

삶에 연관된 통일교육, 책임성 있는 행동을 길러주는 통일교육에서 멈춘다면 아마 학생들은 몇 번의 시도 후에 사회라는 거대한 체제 속에 개개인의 나약함을 깨닫는 데 그칠 것이다. 또한 쉽게 변할 것 같지 않는 남북한 현실을 바라보며 실망감과 절망감만 느낄 것이다. 어쩌면 비합리와 불평등이 존재하는 분단현실 앞에 뒤돌아서 무관심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

월터스토프 또한 교육 목적에 관한 (삶을 위한 교육, 책임성 있는 행동을 위한 교육) 자신의 관점이 다소 미흡하다고 느꼈다. 그는 '책임성 있는' 행동에만 너무 무겁고 절대적인 강조점을 두는 것은 교육목적에 지나치게 협의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교육이 책임성 있는 인간의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설정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삶에는 책임성 이상의 무엇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삶에는 책임성 뿐만 아니라 기쁨, 즐거움, 번성, 평화와 같은 차원도 있는데 책임성 있는 행동을 위한 교육목적은 법과 명령, 책임과 의무, 그리고 순종 등과 같은 삶의 차원은 잘 반영하고 있지만 기쁨과 즐거움 등과 같은 삶의 다른 차원들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인식한 것이다(Wolterstorff, 2002: 276).

필자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문화명령을 내리실 때 그것은 단순히 명령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는 월터스토프의 입장을 수용한다. 문화 명령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인간의 순종을 강조하는 교육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인간의 감사를 가르치는 교육으로 인도한다(Wolterstorff, 2002: 265).

이를 통일교육에 적용시켜본다면 자칫 현실의 벽 앞에 좌절하여 무관심 혹은 급진적 비판주의자로 돌아 설 수 있는 위험에 처한 학생들을 위한 대안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 기저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에서 비롯된다.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의 초석으로 '감사'가 세워져야 하며 감사로부터 삶을 바라보고 향유해나갈 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마치 풍량이 이는 바다에 작은 돛단배를 탄 사람들에게 등대가 한없는 위로가 되는 것처럼 말이다. 통일교육을 지도함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방향은 감사를 위한 통일교육이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암담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자칫 삶에 연관된 책임감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불완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비판과 회의감만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감사에 대한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이 전에 언급했던 두 가지 방향성은 비로소 보완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필자는 분단의 현실 속에 통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현존하고 있음을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통일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 안에 우리 개개인이 도구로 사용되어짐을 기대하며 감사해야 한다.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 채 역사적 현실 앞에 우리는 우리의 본연을 책임 있게 감당해야 한다.

#### 4. 정의와 평화를 위한 통일교육

개인과 국가 그리고 세계는 평화를 원하고 있다. 개인의 평화, 국가의 평화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인류의 평화는 우리의 이상향이 되는 바다. 비록 시대와 상황에 따라 평화교육의 구체적 실천형태는 각각 다르게 전개 되어왔다. 예를 들어 고병헌(1994)에 따

르면 "유대인과 아랍인의 갈등이 첨예한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과 아랍인의 공존을 위한 '공존교육(co-existence education)'이 평화교육의 구체화된 형태로 자리 잡고 있으며, 가톨릭교도와 신교도 사이의 갈등이 심각한 북아일랜드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종교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 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유산교육(CulturalHeritage)'과 '상호이해교육(Education for Mutual Understanding)' 이 바로 평화교육이 구체화된 예이다"고 한다.

삶에 연관된 통일교육도 책임성을 기르기 위한 통일교육도 감사를 위한 통일교육도 주 요리(maindish)가 빠진 코스요리와 같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맛보고자 하는 주 요리는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교육이다.

월터스토프는 기독교 교육이 정의와 평화를 위한 교육목적을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점에 관심을 갖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기독교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정의와 평화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둘째, 기독교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평화의 도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정의와 평화의 구현은 인간의 노력을 요구하지만 인간의 노력이 정의와 평화를 완전히 실현하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삶의 차원을 요구한다. 셋째, 기독교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정의와 평화가 모습을 드러낼 때 이를 축하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넷째, 기독교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평화가 없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평화의 없음을 애통해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Wolterstorff, 2002: 262).

월터스토프의 평화교육의 최종 목표는 정의와 평화를 위한 교육이다. 통일교육의 또 하나의 방향이며 궁극적인 방향도 결국에는 정의로운 평화통일이야만 한다.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의로운 평화통일을 구현하고자 열망하는 마음과 정의로운 평화가 이 한반도에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을 애통하며 기도하는 애씀(노력)이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야 한다. 이 것은 통일교육에서의 방향을 제시 해준과 동시에 통일교육의 열매로 나타날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교육은 궁극적으로 통일에 대한 문제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문제의식들을 성숙시켜 주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분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에 사는 나(개인), 더 나아가 세계에 사는 나(개인)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한반도를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정의로운 평화를 꿈꾸며 이룩해 나가려는 세대들을 일으키는 것이다. 정의로운 평화는 결국 성경에서 제시하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공의 앞에 순종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사회일 것이다. 그곳에서는 "이리가 어린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뎀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이사야11:6-8)" 사회일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도래는 분명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평화의 도래를 위해서 가르치고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할 정의로운 평화통일의 궁극적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월터스토프의 말을 인용하며 글을 맺으려 한다.

"비록 평화가 역사 속에 완전히 도래하는 것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

적 선물이지만, 또 우리의 삶 속에 이따금씩 찾아드는 평화 역시 하나님의 선물의 차원 이라고 해도 우리가 사역하고, 위해서 싸워야 할 것은 이 평화이다. 우리는 팔짱을 끼고 주위에 둘러서서 평화가 도래하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분으로 일하는 사역자, 즉 하나님의 평화를 위한 사역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의 사명이다.”(Wolterstorff, 1983: 72)

## 결론

이 논문은 남북한의 관계가 어려운 시점에 직면한 만큼,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이 약화되는 만큼 더욱더 평화교육에 대한 관점에서 시작되는 통일교육이 필요한 때임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필자는 우선 현 통일교육의 실태에 대해 분석하고 월터스토프의 평화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평화교육이 통일교육에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밝혔다. 그 내용은 월터스토프가 주장한 교육의 목적을 통일교육에 적용하여 삶에 연관된 통일교육, 책임성 있는 행동을 기르는 통일교육, 감사를 위한 통일교육, 정의와 평화를 위한 통일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방법을 통하여 남북한의 관계가 학생들의 개인의 평화 뿐 아니라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며 이루어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필자가 주장한 4가지 방향을 추구하는 통일교육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교수방법이 무엇일지에 관해서는 더욱 논의 할 필요가 있다. 제시한 통일교육의 방향이 어떻게 교육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숙고도 필요하다. 또한 필자가 제시한 (월터스토프의) 평화교육의 관점에서 바라 본 통일교육의 방향이 '추상적이다' 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보기에 통일교육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정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며 정의롭지 못한 현실에 있어서 애통해 할 줄 아는, 즉 참된 통일을 염원하는 세대들이 일어나야 함은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받은 인간의 열망에 의해 평화통일은 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 나라에 평화통일을 이루어지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

## 참고문헌

고병현 (1994). “평화교육에 성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김성수 (2005). “평화(shalom):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즐거움.” 고신대학교.  
 신영순 (2004). “니콜라스 월터스토프(Nicholas P. Wolterstorff)의 기독교 교육 사상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안승대 (2002). “남북한 교육이념의 비교교육학적 분석.” 영남대학교.  
 오기성 (2012). “학교 통일 교육의 주요 방향에 대한 성찰.” 경인교육대학교.  
 윤웅상 외 (2004). 『즐거운 초등학교 통일교육』.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윤응진 (2001). 『기독교 평화교육론』. 서울: 한신대학교 출판부.  
 이미경 (2010). 『미래지향적 학교 통일 교육의 구현』.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전재영 (2011). “초등 도덕과 통일교육에서 다문화교육적 접근의 가능성.”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 주최단체 소개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전화 : 02-754-8004, 02-3272-4967, 070-8285-4967  
 \* E-mail : [info@worldview.or.kr](mailto:info@worldview.or.kr) / [gihakyun@daum.net](mailto:gihakyun@daum.net)  
 \* 홈페이지 : [www.worldview.or.kr](http://www.worldview.or.kr) Fax : 0303-0272-4967  
 \* 주소 : 서울 용산구 이촌 2동 212-4 한강르네상스빌 A동 402호

#### 1. 기독교학문연구회(기학연)

기독교학문 연마를 위해 학회인 '기독교학문연구회(이하 기학연)'를 둔다. 기학연은 아래의 활동을 한다.

- 각 학문분야별로 신학과 학제간 연구를 진행하여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추구한다.
- 연구 발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연 2회의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신앙과 학문>을 연간 4회 발행한다.
- 기금을 조성하여 기독교학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한다.
- 각 전공별 기독교 학회들의 학술활동을 지원한다.
- 각 기독교대학들의 기독교학문 활동을 지원 및 협력한다.
- 장기적으로 기독교학문연구를 진흥할 수 있는 “한국기독교학술진흥재단(가칭)”을 설립한다.

#### 2. 세계관 운동(DEW)

기독교학자들이 제시한 기독교적 대안을 교회에 알리고, 기독교적 대안이 사회에 실천되도록 아래의 운동을 펼친다.

- 신문, 방송, TV, 인터넷 등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한다.
- 월간 <월드뷰>의 발행을 통해서 교계의 지식인 계층 및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대안을 제시한다.
- 본 회의 출판부인 CUP를 통하여 세계관 관련 도서를 출판·보급한다.
- 회원 교회들과 협력하여 기독교적 대안이 확산되도록 한다.
- 본 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전국적 조직을 운영한다.

#### 3. 교육

- VIEW와 같이 기독교세계관을 가르칠 수 있는 기독교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을 국내에 설립하여 운영한다.
- 교수, 교사, 목회자, 언론인 등 사회적 영향이 큰 집단에 적합한 전문 직종별 아카데미나 프로그램인 기독교 미디어아카데미를 운영한다.
- 선교단체와 협력하여 제3세계 국가에 기독교세계관 대학 및 대학원 설립을 지원한다.
- 기존의 기독교대학들과 협력하여 기독교세계관 교육을 실시한다.
- 각 신학교 안에 기독교세계관 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기독교세계관 교육을 실시한다.
- 이러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커리큘럼과 교재를 개발한다.
-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역사, 과학 등 제 학문 분야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 교재를 개발한다.